

브라질 노동운동과 좌파정당

이 성 형 (동국대 강사, 정치학)

I. 머리말

브라질의 민주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현상 중의 하나는 매우 정치화된 노동운동이 지난 10년간 발전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참여를 주장하는 '노동자단일연맹'(CUT: Central Unica de Trabalhadores)과 대중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확충한 좌파 정당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의 등장은 전통적으로 좌파정치가 미약했던 브라질에서는 매우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남미대륙 전체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매우 특이한 경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재작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노동자당의 후보 룰라가 결선투표에서 획득한 44%의 지지율은 브라질 정치의 지형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화의 현단계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대의제 정착과 사회개혁의 이미지와는 달리, 경제는 탈국적화되고 연고주의가 강화되며 공공영역이 '야만적으로 사유화되는' 네오폐플리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Panizza 1991)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수적 근대화 노선은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그 어느 때보다 대중의 탈정치화는 심화되고 있고 현실에 불만을 품은 층은 좌파정당들에 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라질 노동운동은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적 근대화' 노선에 대항하는 대안적 민주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난 10여년간의 변화가 기존의 코포라티즘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변형시킬까? 노동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향후 노동운동/국가 간의 관계는 어

떻게 정착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포괄적인 대답은 되지 못하지만 일단의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노동운동의 조건

브라질 노동운동의 특징을 규정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환경적 변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인구의 지역별 부문별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의 지역적 차이도 심하다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브라질의 근대적 노동인구는 주로 남동부와 남부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노동자들과 자본가의 갈등도 주로 이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북동부 주들에서 노동운동은 미미하다. 특히 상파울루주에 노동력 인구의 35.8%가 밀집해 있는데, '브라질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ABC 공단(상투 안드레, 상 베르나르두, 상 카에타누)에는 철강, 기계, 전기 등 중화학 관련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70년대 말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신노조운동'의 인적 물적 기반은 바로 근대산업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이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동자 집단의 부문별 차이도 매우 크다. 특히 중화학 관련업종의 과점적 거대기업(주로 다국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ABC 공단의 노동자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른 산업노동자들과 구분된다. 이들은 우선 임금수준과 소비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섬유산업 노동자들과 별로 동류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마르틴스 로드리게스 등이 포트 브라질의 두 공장(상파울루, 상베르나르두)의 노동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각 68%와 51%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 중 숙련공들은 보통 중간층 가정과 다를 바없이 내구소비재들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artins Rodrigues 1991: 27). 따라서 ABC 공단의 신노조운동을 '잠재적 노동귀족들의 운동'으로 평가하는 사회학자(알메이다)도 있다. 이러한 부문별 격차는 노동운동의 통일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전통적으로 조직화가 힘들었던 농업노동자들의 경우 농업의 자본주의화가 진전되고, 애그리비지니스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노동운동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군부정권이 창설한 FUNRURAL에 의해 농업노동자노조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 결과 농업노동자전국연맹(CONTAG)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연맹은 아직 농업개혁과 같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쟁점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단기적인 노사갈등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노동운동의 환경변수 중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개입의 성격을 들 수 있다. 특히 코포라티즘적 전통이 깊은 브라질의 경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접적인 개입과 노동관계법을 통해 전국적 수준의 연대와 결함을 방해한다. 또 노사협상의 시점을 교묘히 분절화시키고 직종별 고립화를 유도해낸다. 따라서 노동운동을 지역별, 업종별로 묶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또 국가는 '관변노조 sindicatos de oficio'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노동부의 통제하에 둔다. 이와 더하여 노동재판소의 강제적 조정과 법적 개입도 노동운동 성장의 장애요소로 들 수 있다. 1930년대 이래 이제까지 헌법의 큰 틀이 세번이나 바뀌었고, 또 자율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신노조운동'에 의해 큰 저항에 부딪혀 있지만 코포라티즘적 제도와 구조는 여전히 온존해 있다.

〈표 1〉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단위:천명)

	1950	1960	1970	1980
총 경제 활동 인구	17,117	22,750	29,557	43,236
농 수 산 업	10,239	12,277	13,088	12,661
제 조 업	1,608	1,954	3,242	6,939
건 설 업	585	781	1,719	3,171
상 업	943	1,487	2,247	4,038

〈표 2〉 고용인구와 노동조합의 지역적 분포

지역	지역규모(천km ²) (1983) (%)	고용인구비 (%)(1980)	도농노조 수(1979)	노조가입 노동자수	
				도시	농촌(천)
리우데자네이루	44 (0.5)	15.4	234	1,388	58
상파울루	247 (2.9)	35.8	546	1,536	429
술	577 (6.8)	17.6	1,118	839	1,427
미나스제라이스					
에스피리투상투	632 (7.4)	10.5	515	374	544
북동부	1,548 (18.2)	13.4	1,380	688	2,282
북부와 중서부	5,454 (64.7)	5.2	314	248	357
총 계	8,512 100.	100.	4,124	5,139	5,098

노조가입 총노동자수: 10,238 천명

노조당 노조가입 노동자수 평균: 2,482명

Ⅲ. 신노조운동과 민주적 이행¹⁾

군부정권의 경제적 실패에 따라 민선정부로의 이양이 시작되는 소위 '정치적 개방' 시기에 해당하는 70년대 말부터 브라질 노동운동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약 10여년간 우리는 매우 정치화된 노동운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1978~80년도에 ABC 공단의 금속부문 노동자 세력이 주축이 된 파업운동은 당시 군부의 '조직적 퇴각' 프로그램('통제된 재민주화')에 큰 균열을 내면서 민주화의 촉매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브라질 노동운동의 조합주의적 전통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변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브라질 기적'의 산물인 중화학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상파울루 지역의 노동자 세력들이 주축이 된 파업운동은 정부의 물가지수 조작사건을 계기로 촉발되어 1978년부터 약 2년간 지속된다. 파업 참여자의 숫자는 1978년의 경우 55만명, 1979년의 경우 2~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파업운동은 초기의 임금인상 투쟁을 거쳐 점차 고용안정, 파업권, 노조의 자율성, 국가개입 거부, 정치적 민주화 등의 쟁점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정치화되었다. 이 파업운동으로 노동자들은 군정시절 불법화되어 있던 파업

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성형(1989)을 참조하시오.

브라질 노동운동과 좌파정당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공장위원회 조직을 통하여 기층노동자들을 아래로부터 동원하는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여 기존의 어용노조에 의한 이익대표 체계를 크게 뒤흔들었다. 흔히 '신노조운동'이라 불리는 이 파업운동은 기존의 조합주의적 틀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민주적 자주적 노조를 건설하자는 운동세력('노조내 반대파 Oposição Sindical')에 의해 주도되면서 결국 '노동자단일동맹'(CUT)으로 발전한다. 이들은 기존의 노조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던 전통적 노조 지도자들이나 공산당계 운동가들과는 달리 기존의 노조구조를 해체하고 대체노조를 건설하자는 의견(parallel unionism)을 강하게 내세웠다. 아울러 정치적 개방기에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참여와 개입을 강조하는 '민중전선'론에 동조하면서 노동자당 건설운동에 지지를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조단합파 Unidade Sindical'라 불리는 세력들은 대체노조 건설론을 비판하고 기존 노조구조의 장악이 훨씬 효과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하였고, '신노조운동'의 정치화에도 경계의 눈초리를 보였다. 이들은 군부정권의 대체를 민주화의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면서 '민주세력 대동단결'('민주전선론')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노동자세력의 독자적인 정치참여를 추진하던 노동자당과는 달리 당시 온건야당이었던 '브라질민주운동'(후일 '브라질민주운동당'으로 개칭)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었던 셈이다.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노동운동 세력의 분열은 점차 강화되어 왔고, 결국 전국적 규모에서도 두 개의 노총이 등장하였다. 노조단합파의 조직은 CONCLATT를 거쳐 '노동자총동맹'(CGT)로 발전하였고, 노조내 반대파의 조직은 '노동자단일동맹'(CUT)으로 발전하였다. 또 양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사실상 분화되었는데, 전자는 온건한 민주화 노선을 견지하는 브라질민주운동당을 지지하게 되고(CGT/PMDB), 후자는 보수적 근대화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노동자당을 지지하게 되었다(CUT/PT).

IV. '신공화국'의 노동정책

민주적 이행기에 있어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여전히 코포라티즘적 통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88년의 신헌법 속에서도 의연히 유지되고 있다. 신노조운동 세력이 민중주의, 통제조합주의를 근원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했지만 제도의 힘은 쉽게 깨어지지 않았다. 다만 신공화국 정부는 노동관계법에 큰 손을 대지 않고 다만 세련된 전술을 구사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대처해 나갔다. 정부의 신노조운동 약화 노력은 1987년 7월에 있었던 포드자동차회사 사건에서 잘 엿볼 수 있다.

1981년에 사용자의 협상 대상으로 인정되었던 공장위원회에 대하여 회사측은 전면적인 탄압을 개시하여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철폐하고 해고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노동부가 개입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드사 급속노련에 공장위원회 해체를 통고하고 204명의 해고 조치를 단행하였다. 여기에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유사한 조치를 실행하였다. 결국 정부는 수수방관하면서 사실상 사용자측의 입장을 옹호하였고, 신노조운동의 조직적 기초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확실히 드러난 것은 신공화국 정부가 과거의 코포라티즘적 전통의 부활을 다시 꿈꾸고 있다는 점이었다. 정부가 하부기반이 허약한 중앙집권적 노동관료제를 다시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 세력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신공화국 정부가 들어서서 최근까지 노사갈등, 勞政葛藤이 잦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노조지도자들이 1988년 신헌법 제정시 자신의 지위를 보장할 고용안정 보장 조항을 아예 헌법에다 삽입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갈등 때문이었다.

정부가 정치화된 신노조운동 세력을 제압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외채위기 속에서 안정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노조의 반발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세력이 매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 정당정치가 미발달한 브라질의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치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택하

는 방식은 ‘사회협약’을 통한 안정화 정책 게임보다는 ‘위협’이나 ‘억압’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정치화된 노동자 세력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노동자/정부/자본가 사이의 제로섬 게임의 정치가 반복된다.

최근 콜로르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메카니즘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멕시코처럼 정부가 노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연대협약’ 또는 ‘안정과 경제성장 협약’을 맺어 인플레이션을 잡은 경우나, 아르헨티나의 메넬정부처럼 노조를 무력화하고 대자본가와 전략적 동맹(‘보수적 동맹’)을 맺어 외환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브라질과 같은 ‘치킨 게임’ 또는 ‘수인의 딜레마 게임’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V. 노동자당의 성장

신노조운동의 활성화와 노동자당의 출현은 브라질 정치사에 몇가지 새로운 점을 가져다 주었다. 전통적으로 엘리트주의적 특성을 매우 강하게 지닌 브라질의 기존 정당들과는 달리, 노동자당은 최초로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동원에 의해 결성되었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노동당(PDT)이 여전히 카리스마적 지도자(브리줄라)에 의해 좌우되는 엘리트주의적 민중주의적 정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자당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참여와 개입을 지향한다. 즉 동조자와 지지자만의 정당이 아니라 ‘활동가의 정당’으로 뿌리를 내리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둘째, 비교적 당내 민주주의와 토론이 다른 엘리트 정당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다. 이러한 점은 노동자당이 근대적 정당으로 내부조직을 갖추는 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만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노동자당의 성격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당내 우파 사회민주주의자들로부터, 레닌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선 레위와 같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명백히 반자본주의적 강령을 지닌 민주적 다원적 전투적 정당”으로 규정한다. 정치학자이자 당서기장을 역임한 바 있는 프란시스코 웨포르

트는 “동구형 관료사회주의도, (스페인의) 곤살레스나 서독형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아닌” 사회주의 정당으로 규정한다(Weffort 1984). 사회학자 J. A. 모이세스는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를 지닌 정당으로 규정하고 미국 학자 켈도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당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다고 보고 있다(Keck 1987). 그러나 당지도부의 사회적 구성을 연구한 마르틴스 로드리게스는 노동자당이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중간계급(계층)의 정당”이라고 못박는다(Martins Rodrigues 1989).

여기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많은 당내의 논자들이 당의 성격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지만 이에 대한 정통적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당의 지지층에는 우파 사회민주주의 세력, 교회 진보세력, 다양한 맑스주의 그룹들, 노동자계급, 중간계층, 자유전문 직업인 등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당강령에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명확히 해석하거나 규정해 버리면 내부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선진국의 우파 사민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자당은 많은 라틴아메리카 좌파정당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동구형 사회주의도 ‘관료적 사회주의’ 모델이라고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당 다수가 합의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주도의 참여민주주의 모델”(Weffort 1984)로 이들은 새로운 현대사회주의상을 조심스레 모색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다.

1991년 11월말에 있었던 제1차 당대회에서는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유로코뮤니즘 강령에 가까운 내용이 당문서를 채웠는데, 그 골자는 “통치수단의 사회화(이탈리아 공산당이 주장하던 ‘권력의 사회화’ 또는 ‘정치의 사회화’ 테제와 거의 같다: 필자 주), 권력의 분산, 정치적 다양성의 인정”으로 요약된다. 또 “민주적이고 전략적인 사회적 지향의 계획 아래 통제되는 시장은 우리들의 사회주의 건설 관념과도 양립한다”고 문서는 적고 있다(PT 1992: 24~5). 아마 잡다한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가장 포괄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강령이 유로코뮤니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절충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문서들과 당강령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이외에 우리가 당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당의 지지층과 지도부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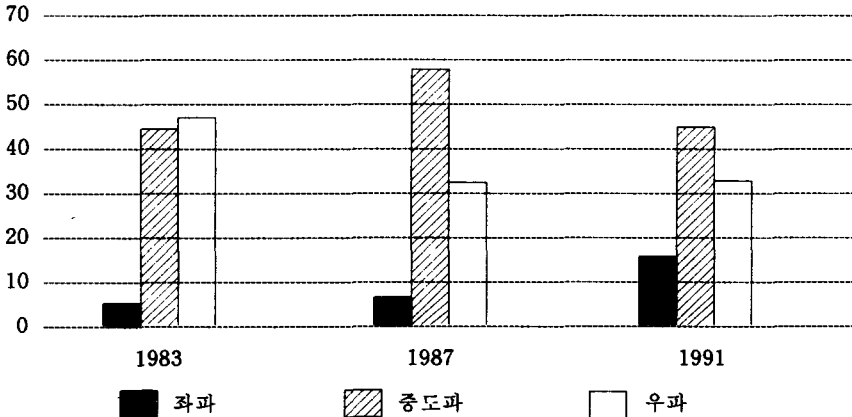
적 구성이다. 이 분야에 관한 탁월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당의 구성원은 크게 산업노동자, 중간계급, 고임금층, 교원, 농촌노동자 등에다 카톨릭 교회의 청장년층, 다양한 경향의 맑스주의 그룹들이 가세된다. 많은 논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상파울루 '신노조운동'의 주도력은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당의 지도층에는 전통적인 공식노조 세력에서 충원된 부분도 적지 않다. 여기에 교회의 노동사목운동의 강력한 영향력, 막강한 교원노조의 지지를 고려한다면 당의 성격을 단순히 '노동자들의 정당'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당의 지지층 분포도에서 금속노조원(위에서 보았듯이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다)의 비중은 교원 다음으로 두번째 범주로 분류될 뿐이다. 그 외 상당한 숫자의 지지층은 자유직업인들로 대부분 '임금소득층으로 중간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의 이데올로기, 지지층, 지도부의 구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볼 때 "노동자당은 자신을 노동자계급의 정당으로 과시하기보다는 엄격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니지 않는 임금소득층의 정당으로 내세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동원의 기초를 확장시킬 수 있었고 브라질 사회에 보다 잘 적용할 수 있었다"(Martins Rodrigues 1989: 31)는 한 사회학자의 평가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동자당을 비롯한 좌파정당의 선거 득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89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당의 후보 룰라가 결선투표에서 현대통령 콜로르(50%)와 대결하여 44%를 얻었다는 사실은 이 당의 노선과 대안적 프로젝트가 그만큼 사회적 '정당성'(쉐보르스키는 이를 "대안에 대한 신뢰감"으로 규정한다)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반영한다. 1990년 선거나 1991년 선거에서도 좌파의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한 선거 분석가는 평가하고 있다(Brasil de Lima 1989, 1991). 이 연구자에 따르면 1987년 이래 중도파의 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것이 좌파의 지지표로 둔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은 여전히 중도파-우파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상원이 이보다 더 보수적인 세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전히 다수당이 난립하는 구조속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정당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은 여전히 중도파나 우파 성향의 정당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 좌파정당들이 최근의 노동운동의 성장에 힘입어 각개약진하였

지만, 그 지지기반이 주로 남동부 주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3〉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으로 본 정당의 의석 변화



* 좌파 정당들: 노동자당(PT), 민주노동당(PDT), 브라질사회당(PSB), 브라질공산당(PCB: 정통), 브라질공산당(PCdoB: 과거 친알바니아계 내지 마오주의계).

* 중도파 정당들: 브라질사민당(PSDB),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기민당(PDC), 브라질노동당(PTB), 자유당(PL), 사회재건당(PRS).

* 우파 정당들: 자유전선당(PFL), 국민재건당(PRN), 사회민주당(PDS).

출전: Brasil de Lima(1991: 94~5).

브라질의 정치는 민주주의 강화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라무니에가 지적하듯이,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의 점진적 분산, 제도적 교착상태, 다수가 합의하는 '국민적 프로젝트'의 부재 등 때문에 정부의 거시적 정책결정 능력은 더욱 약화되고, 여기에 더하여 다수당의 난립에 따른 교착상황이 브라질의 정치적 위기를 규정하고 있다(Lamounier 1990). 여기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적 자유주의적 근대화 노선은 점차 대중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고, 이 때문에 좌파정당의 득표가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다.

VI. 맺음말

브라질의 노동자세력은 칠레, 우루과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이행기에 하나의 강력한 사회정치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주로 남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산업부문에서 동원된 새로운 노동자 세대는 군정 시대의 여러가지 탄압을 뚫고 파업권을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양보를 받아냈다. 또 이 세력은 정치세력으로도 진출하여 여러 좌파정당의 각개약진에 그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의 노동운동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우선 노동운동 세력이 내세우는 이슈는 임금소득자 20%의 관심사항을 포괄할 뿐 절대다수인 최저임금층(80%)의 문제를 아직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 비공식부문과의 연대 또는 관계 설정 문제도 노동운동이 어차피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경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던 외채 위기, 기술 격차의 심화에 따른 경쟁력의 약화, 저임금 노동력의 외국투자 유인효과의 감소,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따른 안정화 정책, 탈산업화와 국영부문의 축소에 따른 고용인구의 감소, 비공식부문의 증대에 따른 고용인구의 이질성 증대 등의 현실은 노동운동의 열악한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은 산업노동인구를 줄일 뿐 아니라 노조가입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물론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 과거보다는 노조가입율이 증가하였지만 위와 같은 변수들이 장기적으로 노조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노동운동은 정치적으로 자립하는 데 성공했으며, 따라서 과거 라틴아메리카대륙의 노동운동의 발목을 잡았던 민주주의적 조합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적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통치 불가능성'이 심화되고 자본가들의 헤게모니 전략이 위기에 빠진 이 때 노동운동과 좌파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계속 확장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Alves, M. H. Moreira

1989 "Trade Unions in Brazil: A Search for Autonomy and Organization," in E. C. Epstein (ed.) *Labor Autonomy and the State in Latin America*, Boston: Unwin Hyman.

Brasil de Lima Jr., Olavo

1989 "Modernisation, vote de gauche et systeme des partis au bresil", *Problemes d'Amérique latine*, 93.

1991 "Le nouveau Congres, ni vraiment nouveau ni vraiment different", *Problemes d'Amérique latine*, 2, juillet—septembre.

Da Silva, Roque Aparecido

1986 "Brasil: sindicatos y transición democrática", *Nueva Sociedad*, 86, mayo/junio.

Keck, Margaret E.

1987 "Democratization and Dissension: The Formation of the Workers' Party," *Politics and Society*, 13:1.

Lamounier, Bolivar

1990 "El Brasil de la postransición, Antecedentes, riesgos y posibilidades del gobierno Collor",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no. 4, octubre—diciembre.

Martins Rodrigues, Leoncio

1989 "La composition sociale des cercles dirigeants du parti des travailleurs au bresil", *Problemes d'Amérique latine*, 93.

Oliveira, Francisco da

1989 "Innovaciones en políticas económico-sociales: El caso de Brasil", en F. Calderón y M. R. dos Santos (coord.) *Hacia un nuevo orden estatal en América Latina? Los actores socioeconómicos del ajuste estructural*, Bue-

nos Aires, CLACSO.

Panizza, Francisco

1991 “Las paradojas de la consolidación de la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Cuadernos del clae*, 56, mayo.

PT(Partido dos Trabalhadores)

1992 “PT por un socialismo democrático,” en *Tesis 11 Internacional*, febrero/marzo.

Weffort, Francisco

1984 *Por que democracia?*, São Paulo, Brasiliense.

Sindicalismo Brasileño y el PT

Rhee, Sung-Hyong

El sindicalismo brasileño vive un activo proceso de crecimiento en el actual período de redemocratización del país. Se ha intentado aquí destacar la movilización política y económica de la clase trabajadora a nivel nacional. Luego, se analizaron las dificultades y desafíos que debía enfrentar el movimiento: la desigualdad del desarrollo regional, la legislación laboral coercitiva y la intervención corporativista de la Nueva República. A pesar de todo, el sindicalismo del país tuvo mucho éxito en expresar políticamente las voces de las clases subalternas con la construcción del PT. Finalmente, se han analizado las perspectivas y encrucijadas del movimiento laboral.